



‘팔려 간’ 대장경

불교계 무관심 속 경남도 등 지자체만 행사 열중

3월 1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이 봉행됐다. 불교계로서는 '1000년 만의 귀환'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역사적인, 감격스러운 날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봉정식은 '조출하게' 치러졌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스님은 이날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정하고 치사를 하게 돼 있었지만 불참했다. 일반 대중의 참여도 적었다. 행사에는 동화사 사중 스님들이 동원됐고, 합창단과 취재진을 합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 기념사업이 불교계의 무관심 속에 뚜렷한 구심점 없이 곪고 있다. 행사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할 불교계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사업성과에 치우친 기관별 홍보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고려 초조대장경 1000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종단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시 팔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조계종이 종단차원에서는 진행하는 대장경 천년행사는 9월 20일~11월 2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될 대장경 전시회가 고작이다.

일간지, 교계 언론, 단체 등은 고

대장경 1000년이라고 적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착각(?)은 행사를 주최하는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장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3월 초 A신문 인터뷰에서 "올해가 팔만대장경 목판을 제작한지 1000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교계 한 신문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인터뷰 기사에 버젓이 '팔만대장경 조성 1000년'이라고 썼다.

이렇다보니 올해가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의 해라는 것을, 초조대장경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드물 수밖에 없다.

조계종의 한 교역직 스님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내용은 언론에서 바로 잡아 줄 일"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고려대장경은 우리 민족의 것이고, 전 세계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주체는 분명히 있다. 굳이 말하자면 불교계이고, 팔만대장경관을 소유하고 있는 조계종이다.

관련기사 3편 이상언 기자

종단 차원 기념행사 전시회 뿐 교계조차 해인사 대장경과 혼돈

려대장경 관련 기사를 특점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대장경 혹은 초조대장경이 아닌 '팔만대장경 조성 1000년 해'로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계 한 실행단체는 기관 내 사업의 의미를 대장경 1000년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팔만대장경 1000년'을 맞아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대부분의 기사에 그렇게 보도돼 의심 없이 팔만

국민들도 5대 결사 지속 위해

불교미래사회研, 화이트칼라의 불교 신뢰도 낮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불교의 이익집단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30대 고등교육을 받은 화이트칼라 계층은 불교·스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후)는 3월 29일 불교 및 승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사회연구원소가 2월 18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전화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종교는 불교(29.6%) 기독교(20%) 천주교(8.6%) 무교(40%)였고, 지역은 서울(21%) 경기·인천(28%) 부산·울산·경남(15.9%)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이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국민들은 스님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부족하다고 봤다.(1.5%) 스님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수행역량(47.9%)과 함께 사회활동역량(32.7%)을 꼽았다. 불교 성장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보존육성(33.0%), 종교간대화및종교평화(26.7%) 사회정의실현(10.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퇴후 스님은 "국민들은 전통문화와 종교평화가 불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향후 경기가 인건(28%) 부산·울산·경남(15.9%)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이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불교계 복지시설 불자 종사자만큼 비불자도 많아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는 비불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최근 발간한 <불교사회복지연구> 제10호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조사연구를 수록했다.

2010년 8~10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958개의 종사자 1만3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자는 52%로 무종교 등 불자가 아닌 종사자도 절반 가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동섭·이은은 기자



한뫼 한뫼 장인의 손길로 조계사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3월 31일 작업 차량 위에서 연등을 설치하는 기술자의 손길이 분주하다. 유난히도 쌀쌀한 불교계와 정부의 관계가 저 등이 밝히는 빛과 온기로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부처님 글=박기범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수행만 제대로 했다면...”

불교중앙총 관장 흥선 스님 대토론회 중 언급

"MB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스님들이 많다.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3월 30일 개최한 한 국불교총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흥선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의 발언이다.

스님의 발언은 'MB선거캠프 불교계 명단'에 거론된 당사자들과

총무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부정하거나 묵번대처하는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나온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흥선 스님은 행사 후 "바른 수행을 했다면 역사적으로 바른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을 목격해, 올바른 수행관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사 고

매주 32면 증면 발행

현대불교신문은 32면 증면을 새 도약의 계기로 삼아,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한 정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회기사면 증면

바른 시각으로 불교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회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연재 강화

풍성한 읽을거리, 알찬 정보를 위해 제마나와선원 일목 스님의 '초기불교 수행이야기', 풍도사 정도 스님의 '삼소굴의 향성', 동화사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최동순 연구교수의 '구슬로 쓴 한국불교인물사' 등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사 고

내 마음 속에서 발견한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주제: 부처님오신날 관련 이야기나 수행을 하면서 만난 부처님

응모기간: 4월 1~30일

분량: A4용지 2매 내외

접수방법: 이메일 hyunbul@gmail.com

*응모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함께 기재

응모작 중 봉축 특집호에 게재된 분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02)2004-8252

830호 CONTENTS

▶5 인터뷰 인환 스님 (동국대불교학술원 원장)



▶6~7 특집 불교증흥을 위한 대토론회



▶11 법학 가독한 곳 삼환양초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나눔의 향기 나눔의 기쁨

화엄 법화회

禪 서화전

전시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나무갤러리

개막식 불기 2555 2011년 4월 11일 오후 2시

전시기간 불기 2555 2011년 4월 11일 ~ 16일

